

2025 입시가이드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연극전공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영화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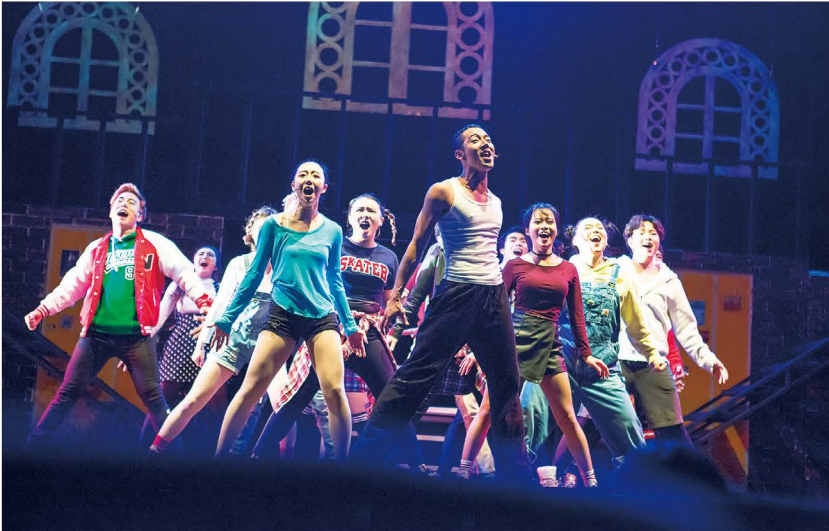
정화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부 영상제작전공, 연기전공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동국대학교 듀이카
영화학 전공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체적인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



교수진

이영석, 이효인, 김정호, 김재성, 김학민

커리큘럼

뮤지컬사, 세계연극사, 오디션테크닉, 연극연기연출론, 극장스태프와무대미술, 극장스태프와조명, 극장스태프와음향, 노래해석, 음악극문헌과연기, 음악극분석, 음악극연기연출론, 희곡문헌과연기, 충동과즉흥, 대사연기, 연극워크샵, 연극창작실습, 공연분석, 카메라연기와촬영, 제작실습, 음악극워크샵, 뉴미디어엔터테인먼트, 음악극창작실습, 제작실습, 화술, 음악극가창, 움직임, 이미지와사운드, 영화사, 비디오제작실습, 시나리오창작기초, 현대영화연구, 초급영화이론, 디지털편집실습, 영화촬영기초, TV제작, 디지털다큐멘터리제작, 고급촬영과조명, 사운드프로덕션, 단편영화와시나리오, 현대영화이론, 영화제작실습, 영화편집연구, TV-CM/뮤직비디오제작실습, 영상마케팅, 고급시나리오창작, 영화비평연습, 현대한국영화연구, 캡스톤디자인, 장면구성과연출, 영화쟁점과콘텐츠제작,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교수법

ft.khu.ac.kr

031-201-2672

학과소개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는 1999년 예술학부와 함께 설립된 4년제 학사과정이다. 문화예술적 소양과 풍부한 감성, 창조적 표현력을 지닌 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해 이론과 실기는 물론 철학, 직업윤리, 기예를 통합한 교육을 지향한다. 학생들은 전방위적인 교육을 토대로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고 실무적 역량을 지닌 영화인과 연기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전공수업은 크게 영화 트랙과 연극 트랙으로 나뉘어 있지만 트랙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교차 수강이 가능하다. 영화 트랙에서는 영화이론을 통해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을 배양하며 시나리오 창작, 촬영, 조명, 연출, 제작, 편집에 걸친 폭넓은 전문 실기를 교육한다. 다수의 촬영 장비와 60평 규모의 영화 촬영 스튜디오, 녹음실, 연기실습실 및 영화제작실습실, 컴퓨터실습실을 포함한 5개의 개인편 집실을 갖추고 있다. 연극 트랙에서는 전통적 형식의 일반 연극뿐 아니라 뮤지컬 시어터와 영상연기, 교육연극, 퍼포먼스 수업 등을 포괄해 배우 전인교육을 목표로 삼는다. 주요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560석 규모의 A&D홀은 한국의 주요 공연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올해 방송 송출 장비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기부금을 조성한 것도 고무적인 성과 중 하나다.

뉴미디어의 부상에 발맞춰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탄탄한 학제도 주목할 만하다. 연극영화학과가 주관하고 포스트모던음악학과가 참여하는 'K-퍼포밍아트 융합 전공'이 대표적이다. 해당 전공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예술 분야를 선도하는 멀티 엔터테이너 양성을 목표로 삼는다. 이 밖에도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싶은 학생은 복수전공처럼 학제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융합적이고 진보적인 시도 외에도 이론과 실기 영역에 맞춰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조직적인 체계도 갖추고 있다. 교수진의 역량도 뛰어나다. 배우와 방송인, 영화인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힘은 학생들의 현장 진출을 돕는 이들의 노력에서 비롯한다. 교수진은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영상자원원 원장,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국립오페라단 단장 등 주요 문화예술기관의 단체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비엔나국제영화제와 미국 구겐하임미술관 초청, 한국 연극 베스트7에 선정되는 등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대표하는 졸업생으로는 배우 공유와 이주영, 뮤지컬 배우 옥주현, <기생충>의 장영환 PD, 시리즈 <비밀란테>의 극본을 쓴 이민섭 작가 등이 있다.

입시전형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영화연출 및 제작 분야를 선발한다. 정시 나군의 수능 위주, 수능 100% 전형으로 성적 산출 방법은 경희대학교 모집 요강을 따른다. 접수 사이트(www.uwayapply.com)를 통해 지원서 작성 후 2025년 1월3일(금) 오후 6시까지 서류 제출 및 전형료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합격자는 2025년 1월24일(금) 오후 6시에 발표한다. 전공별 모집인원 및 반영비율 등 자세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입학 홈페이지(iphak.khu.ac.kr)를 참조하면 된다.



“호기심을 밑거름 삼아 장르를 넘나드는 예술인으로”

김정호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 학과장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을 선호한다. 정시전형에서 오롯이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과 매체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다. 자신에게 낯선 분야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자세는 필수 덕목이 되었다. 꼭 신기술 관련이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다양한 분야를 두루 배울 수 있는 유연한 교육 체계가 두드러진다.

AI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툴을 이용해 간단한 그래픽과 광고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만큼 지금 시대의 영화연출에서는 존재주가 중요했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브레인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경희대학교만의 교육 제도인 '트랙'은 전통적인 학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문간 융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포스트모던음악학과와 협업하여 콘텐츠 관련 전공을 수료할 수 있는 'K-퍼포밍아트 융합 전공'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게임툰, 애니메이션, 시각디자인 등 영화에 자신의 관심 분야를 접목할 기회가 주어진다.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만의 장점을 꼽는다면.

학과 차원에서 지원하는 영상 제작 요건이 출중하다. 촬영 장비와 방송국에 버금가는 스튜디오, 다수의 편집실이 마련되어 있다. 전통적인 영화산업에 국한되지 않는 졸업생들의 진로를 강조하고 싶다. 드라마는 물론 OTT와 콘텐츠 IP 산업까지 다방면에 걸쳐 활약하고 있다. 열린 학문을 강조하는 교육 체계가 이뤄낸 성과가 아닐까 싶다.

글로벌 콘텐츠 시대,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연극전공



교수진

이대현, 이현정

커리큘럼

극장실습, 연기, 호흡과발성, 신체훈련, 극장안전과무대기술, 연출기초, 무대디자인, 연극사, 대본분석, 연출, 조명디자인, 의상디자인, 연극감상과비평, 화술, 분장실습, 제작실습, 공연기획, 뷰포인트, 한국연극, 공연워크샵, 한국전통소리, 뉴씨어터프로젝트, 무대경영, 무대, 격투기술, 무용, 연극제작, 극작, 가창과연기, 연극독립프로젝트, 매체연기

www.dankook.ac.kr

031-8005-3110

학부소개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는 2007년 죽전캠퍼스로 이전한 이래 세부 전공의 전문성 강화에 힘써왔다. 학제를 연극전공, 영화전공, 뮤지컬전공으로 개편했고 이중 연출과 연기 파트로 구성된 연극전공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균형 있는 교육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연출 파트는 저학년 때 창조예술가이자 해석예술가로서 연극연출의 기초가 되는 테크닉을 학습한다. 고학년에 올라가서는 다양한 연극적 실험에 참여해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해나간다. 연기 파트는 요가, 격투기까지 포함한 경계 없는 신체 훈련을 통해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몸의 언어가 어느 정도 숙련되면 학생 개개인의 화술 패턴을 분석하고 매체연기를 접할 기회를 주어 카메라 매체가 가지는 특수성을 이해하게끔 폭넓게 지원한다. 해외에서 경력을 쌓은 교수진과 더불어 외래 강사 역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유능한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빼어난 교수진의 가르침 아래 졸업생들은 연출가, 연극교육자, 무대감독, 평론가, 극작가, 탤런트, 기획, 무대디자이너, 극장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전통성을 가진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는 매해 높은 경쟁률을 자랑한다. 그중에서도 연극전공은 지난 10년간 입시 경쟁률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단국대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꾸준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2024학년도 연기전공 정시모집 경쟁률은 120.5대 1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수년째 전국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보다 꾸준한 인재 배출을 통해 전통 명문의 이미지를 굳힌 덕분이다. 졸업생으로는 배우 박해수, 유지태, 조승우, 하지원, 이요원, 지창욱, 박보영, 우도환 등이 있다.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변화 중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4월 공연영화학부 교원들을 주축으로 교내 관련 업계 교수진과 협업을 통해 설립된 공연콘텐츠연구소가 대표적이다. 공연콘텐츠연구소와 대학원이 함께 구축한 클러스터는 자체적인 공연콘텐츠 기획, 제작, 배급을 위한 전진기지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적인 융합을 지향하는 연구소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인력 양성과 자대 대학원 진학을 및 취업률 상승이 맞물리는 선순환을 그릴 수 있다.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박해수(연극영화 00학번)를 배출한 공연영화학부는 ‘포스트 박해수’를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학제 개편을 추진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 고유의 이야기가 담긴 원천 스토리 개발을 통해 포스트 K콘텐츠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입시전형

2025학년도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정시 전형 입학원서 접수 기간은 2024년 12월31일(화) 오전 10시부터 2025년 1월3일(금) 오후 5시까지다. 서류 제출 기한은 2025년 1월6일(월)까지로 오직 등기로 제출한 서류만 인정된다. 공연영화학부 연극연출전공은 정시의 경우, 실기면접을 실시하는 수시와 달리 수능 100%로 선발한다. 연기전공은 실기 70%와 수능 30%를 일괄 합산하여 반영한다. 연기전공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기 고사는 2025년 1월13일(월)~14일(화) 양일간 치러지며, 지정연기와 자유연기가 각각 50% 비중으로 반영된다. 전공별 모집인원 및 반영비율 등 자세한 사항은 단국대학교 입학 홈페이지(ipsi.dankook.ac.kr)를 참조하면 된다.

“실력과 인성은 물론
열정과 호기심을 겸비한
인재를 찾는다”

이현정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연극전공 교수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연극전공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연극, 영화, 뮤지컬 전공이 학부 기초부터 세분화되어 있어 주어진 커리큘럼만으로도 심도 있는 전문교육이 가능하다. 연극전공의 경우 연기와 연출의 이중 교육 체계가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실기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기 파트는 발성, 신체 훈련, 연기, 공연, 매체연기로 이어지는 심화 교육을, 연출 파트는 연출이론, 실기훈련, 조명, 무대, 의상디자인, 공연, 극작 등을 폭넓게 학습하여 졸업 후 다양한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 예술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가 원하는 인재상이 궁금하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예술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소통하는 예술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력과 인성은 물론 열정과 호기심을 겸비한 인재를 찾고 있다.

실기 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팁이 있다면.

모든 수험생에게 해당하는 말이겠지만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연기 파트 지원생들은 인물과 상황에 집중하고 무엇보다 마음을 비울 것을 제안한다. 연극연출 지원생들은 대본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보되 창조적인 해석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을 재능 있는 여러분을 만나 함께 공부할 날을 기대한다.

한계 없는 제작 지원으로 독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다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영화과



교수진

김대승, 제창규, 이무영, 손현석, 김정선, 강동현,
안광섭

커리큘럼

영화입문, 극작, 촬영과조명기초, 영화보기와영화읽기
1, 2, 시나리오작법, 영화사1, 2, 영화편집기초, 동시녹음
기술, 영화제작실습, 사운드프로덕션, 촬영-비주얼스
토리텔링, 영화편집실습, 영화연출, 영화워크샵1, 2, 3,
4, 디지털포스트프로덕션, 촬영과조명심화워크샵1, 2,
시나리오고급워크샵, 연기연출, 영화장르연구, 제작기
획입문, 제작기획실습1, 2, 뉴디지털시네마토포그래피, 영
화분석과비평

uni.dongseo.ac.kr/film

051-950-6544

학과소개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은 임권택 감독의 유산을 계승했다는 점이 곧 뿌리 깊은 정체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편영화 중심의 독보적인 졸업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예비 및 현역 영화인들의 거점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영화과는 오는 2025년에 설립 25주년, 센텀캠퍼스 이전 12주년을 맞이한다. 멀티플렉스와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국제영화제와 각종 시네마테크 기획전이 열리는 영화의전당 등이 모두 부산 센텀시티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영화 도시 부산의 소프트파워를 상징하는 센텀캠퍼스는 임권택영화박물관과 소향뮤지컬시어터를 비롯한 문화예술 시설과 촬영·녹음 스튜디오, 개인 편집 실습실 21개, 색보정 실습실 2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알렉사 디지털시네마 카메라, 레드 스칼렛 카메라, 다수의 소니 시네마 라인 카메라, 아리플렉스 오비터 LED 라이트, HMI 조명 등 전문 장비 라인업을 통해 재학생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커리큘럼의 핵심에는 2학년부터 5학기에 걸쳐 진행되는 영화제작실습과 영화제작 워크숍 수업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재학 기간 다수의 단편영화를 제작하고, 학교 밖 장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 도전할 기회를 얻는다. 그 결과 2024년에는 동서대학교 출신 감독의 장편영화 2편이 극장개봉했다. 정지혜 감독의 <정순>과 손경원 감독의 <양치기>이다. 장편에 강한 임권택영화예술대학만이 올릴 수 있는 성취였다. 이 밖에도 졸업생 권하정, 김아현 감독의 <듣보إن간의 생존신고>가 2023년 9월 개봉해 1만5천명가량의 관객을 모았고, 강지승 감독의 <현관 앞의 아이>는 부산영상위원회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되어 촬영을 앞두고 있다. 영화과의 교·강사진의 이력 또한 눈길을 끈다. <번지점프를 하다> <후궁: 제왕의 첩>을 연출한 김대승 감독이 학장을 맡았고 <카페 느와르> <예수보다 낫선> 등 독립영화계에서 활동해온 제창규 촬영감독이 학과장으로 학과를 이끌고 있다. 장편 시나리오 개발, 장편영화 제작, 영화음악의 세계, 디지털 후반작업 등 전문가를 초대하는 특강 역시 강점이다. 정기적으로 마련되는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영화 산업 현장의 최신 동향을 학습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영상 제작 워크플로를 교육하는 버추얼 프로덕션 워크숍을 진행하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와 함께 이야기 소재와 시나리오 개발을 하는 등 교육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입시전형

올해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영화과는 수시전형으로 43명, 정시전형으로 1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시전형은 학생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교과전형과 실기전형으로 나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일반계교과 14명과 고교생활우수자 7명을 선발하며, 교과성적과 출결성적 반영 여부에는 차이가 있다. 4명을 선발하는 특성화교과전형은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력인정고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1명을 선발하는 사회배려대상자전형은 사회배려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에 한한다. 올해 새로 도입된 실기전형은 지원자의 스토리 구성 능력을 평가한다. 실기 고사 점수가 80% 반영되며, 제시어(단어) 5가지 중 3개를 선택해 이를 바탕으로 완결된 이야기를 90분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정시모집은 2024년 12월31일(화)부터 2025년 1월3일(금)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합격자는 2025년 2월7일(금)에 발표된다. 원서접수는 동서대학교 입학 홈페이지(ipsi.dongseo.ac.kr) 또는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www.jinhakapply.com)를 통해 가능하다.



“영화는 창조적인 일,
창의적 사고를 하는 학생을
찾을 것이다”

이무영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영화과 부교수

올해 수시모집에서 실기전형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영화는 창조적인 일이나만큼 창의적 사고를 하는 학생을 찾고 싶었다. 실기전형은 이에 걸맞은 시험으로 주어진 제시어를 조합해 상황, 감정, 사건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만든다. 실제 치러 보니 기승전결의 틀을 지키면서도 자신만의 관찰과 탐구의 결과를 내놓은 학생들이 꽤 있었다. 학교성적으로 획일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않는 학생들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

영화제작을 중심으로 한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영화과의 핵심 커리큘럼을 소개한다.

졸업생들이 장편영화 제작과 영화제 수상, 개봉까지 이룬 데는 제작 중심 커리큘럼의 영향이 크다. 2학년 1학기부터 매 학기 개설되는 ‘영화제작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단편영화에 참여하며 제작 워크플로를 경험한다. <양치기>는 학교에서 찍은 단편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다. ‘시나리오고급워크숍’에서는 외부 장편영화 제작 지원 프로그램에 응모할 수준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기도 한다.

많은 지원자 중 어떤 학생에게 마음이 가나.

세상 돌아가는 일과 타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 결국 인간과 세상에 관한 관심이 영화 창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야기의 과녁을 찾는 눈과 그것을 명중시키는 재능이 필요하며, 이야기를 발견하고 이를 극화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적인 매체 환경을
완벽하게 익힌다

정화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부 영상제작전공, 연기전공



교수진

(영상제작전공) 이재용, 전기주, 한동현, 강동균,
류진희, 박현규, 이상노, 백철기, 심정민
(연기전공) 김성택, 최종환, 임주현, 서철, 김기훈,
박경배, 최광호, 박초롱, 김선영, 박응석, 박미란

커리큘럼

(학부공동) 융합예술과미디어, 공연과융합예술, 행복나
눔크리에이터, 예술과기술의융합

(영상제작전공) 모션그래픽, 사진및촬영기초, 스토리텔
링, 영상제작기술과진로탐색, 영상편집, 라이브커머스,
모션과합성, 영상음향, 영상콘텐츠제작, 촬영과조명,
D.I, 방송영화편집, 드론및특수촬영, 사운드디자인, 영
상특수효과, 영화제작워크샵, 크리에이티브광고영상,
방송영화제작현장실무, 디지털미디어전략, 스튜디오제
작, 졸업프로젝트, VFX스튜디오, 뮤직비디오제작, 웹툰
기획, 숏폼콘텐츠제작, 게임엔진영상제

(연기전공) 연기, 카메라 연기, 뮤지컬 연기, 오디션프로
젝트, 연극사, 공연예술일반상식, 희곡읽기와분석, 전공
커리어세미나, 발성과 화술, 연기와 소리, 발상과 표현,
움직임, 연기와 움직임, 공연제작워크샵, 졸업프로젝트,
프로덕션워크샵, 연기에세울일반상식, 뮤지컬명작실기,
연출과 기술제작

ipsi.jb.ac.kr

02-3789-2020

학부소개

정화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부는 영상 및 공연예술 분야간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하는 융합형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기존 영상미디어학부와 공연예술학부를 통합 재편 과정을 거쳐 탄생한 학부다. 현재 영상제작, 시각디자인, 연기, 실용댄스에 이어 한국형 콘텐츠의 미래를 위해 신설된 웹툰애니메이션까지 총 5개의 전공을 포함하고 있다.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를 교육하기 위한 융합예술학부의 강점은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 환경을 재빠르게 반영한 커리큘럼이다. 영상제작전공은 방송, 영화, 광고, 뮤직비디오 등 기존 영상 제작 현장과 관련된 교육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모션그래픽, VFX 및 언리얼엔진5를 활용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한동현 영상제작전공 학과장은 “변화하는 촬영 메커니즘에 맞춰 시네마틱 영상 제작부터 버추얼 프로덕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커리큘럼을 강점으로 꼽았다. 연기전공은 무대연기를 기반으로 융합예술 시대에 필요한 매체연기의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융합형 창작 프로그램을 통해 각 프로덕션의 특성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배우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매체연기 실습’ 부문을 대폭 늘렸다. 최종환 연기전공 교수는 “카메라 앞에서 빛나고, 무대 위에서도 터질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학부 개편 이후 대학로로 이전한 캠퍼스의 설비 및 입시 또한 재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융합예술학부의 장점이다. 무대예술의 중심지인 대학로는 현장과의 협업은 물론, 다양한 매체의 콘텐츠 제작 경험을 쌓기에도 적격이다. 영상제작전공의 경우 지난해에도 방송사 특집 프로그램 제작 실습, 대형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협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했다. 연기전공도 대학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공연 관람부터 현장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구축했다. 캠퍼스 내에는 4K 카메라, 풀프레임 카메라, 드론 장비 등 영상 촬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다. 편집제작실, 개인편집실, 사운드 믹싱 스튜디오, 색보정 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 개념의 미디어센터, 촬영 스튜디오 2개 동 등 기획부터 후반작업까지 영상제작과정 전체를 교내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의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방송 시스템을 완비한 카메라 스튜디오와 넓은 대극장을 갖추고 있어 재학생들에게 전문적인 매체 환경을 미리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입시전형

2025년도 정화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부는 신설된 웹툰애니메이션전공을 포함해 영상제작, 연기, 시각디자인, 실용댄스까지 5개 전공에서 총 336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공별로 모집인원과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비율은 상이하다. 영상제작전공은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하며 학생부 성적 100%를 반영한다. 연기전공의 경우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10명을 선발하며 실기 고사 성적 100%를 반영한다. 실기 고사는 수험생이 준비한 자유연기로 진행되며 수험생이 원하는 특기, 인터뷰, 카메라 테스트 등을 통해 선발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년 12월31일(화)부터 2025년 1월14일(화)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정화예술대학교 입학 홈페이지(ipsi.jb.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한동현 정화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부 영상제작전공 학과장,
최종환 연기전공 교수

2025학년도 입시에서 지원자의 어떤 역량을 주요하게 볼 예정인가.

한동현 소통이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촬영하고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세상이다. 하지만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 지형도가 급변해도 영상 작업은 팀원과의 협업 과정이 필수다. 지원자들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소통 능력과 성실함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

최종환 지원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요즘은 감정의 깊이뿐만 아니라 본인의 독특한 색깔을 보여주는 배우가 어느 곳에서나 돋보인다. 면접 중에는 “혹시 나만 이런가?”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지원자의 면모가 바로 정화예술대학교가 찾고 있는 매력적인 인재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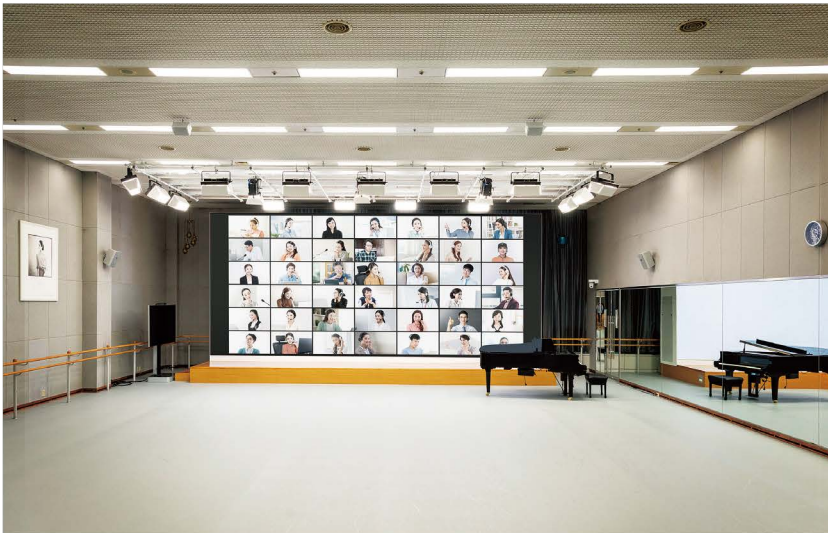
정화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부가 바라는 인재상은.

한동현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며 꾸준히 작업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항상 배우고 습득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유연하게 현장에서 소통하고 적응하는 작업자이길 바란다. 영상제작전공은 지상파 방송국으로 취업 사례가 빈번하다. 학과장으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졸업생이 현장에서 좋은 평판을 얻어 공식적인 특별 채용 제안이 올 때다.

최종환 ‘카메라 앞에서는 스타, 무대 위에서는 예술가’가 우리가 키우고 싶은 인재상이다. 자신감이 넘치고, 도전하는 데 두려움이 없으며, 무엇보다 연기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울릴 줄 아는 배우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선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끊임없는 연습과 협업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물론 ‘최고의 배우는 최고로 놀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말처럼 유연함과 즐거움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술기관과 지역 축제에서 현장 감각과 실무능력 익힌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진

(심리학과) 이우경, 허묘연, 채정민, 한수미, 김환,

김현아, 김현진, 김지연, 최혜라

(문화예술경영학과) 이의신, 김선영, 김형석, 장일범,

이흥재, 손미정, 손상원, 김광현, 백기영, 김용제,

안지연, 정은현, 박병성, 윤성진, 이상연, 윤광식,

김도현, 이재승, 김소혜

커리큘럼

(심리학과) 심리학개론, 상담의기초,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사회심리학, 상담이론과실제, 성장과변영의심리학, 심리통계, 이상심리학, 정서심리학, 현대중노년발달, 마음챙김과심리치료, 임상심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긍정심리와웰빙명상, 시니어라이프코칭, 긍정심리측정및평가, 긍정조직과감정코칭, 시니어상담기초, 범죄심리학, 심리평가, 집단상담, 마음챙김명상과 뇌과학, 마음챙김명상실습1, 마음챙김명상실습2, 시니어상담실제, 조직과웰빙상담, 산업및조직심리학, 심리학현장실습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예술과관광, 공연기획과 제작의 기초, 예술경영입문1, 경영학원론, 음악치료학의 이해, 동시대미술관과 미술경영, 예술기획과 제작, 지역문화재단의 이해, 웹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산업, 하우투(HOWTO)예술경영, 공연예술의 이해:뮤지컬, 극장경영, 생성AI와 디지털아트, 문화와 축제

apply.iscu.ac.kr/

02-944-5000

학과소개

신설한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학과**는 사이버대학교 최초의 심리학과라는 상징성을 띤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한 심리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커리큘럼을 심층적으로 구성했다. 그 결과 일반대학원(상담 및 임상심리전공)과의 연계까지 염두에 둔 수준별·자격증별 교과과정이 탄생했다. 심리학의 기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전공기초과정, 인간의 발달과정과 심리변화를 이해하고 긍정주의적 심리학 관점에서 강점을 개발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 전공응용(실무활용)과정까지 크게 세 가지다. 여기서 심리학과는 3가지 세부 과정을 만들어 차별점을 두었다. 마음챙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리학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마음챙김 명상이 학문적, 실제적 흐름을 형성한 것을 반영한 과목이다. 긍정심리와웰빙명상 등의 강의를 개설해 마음챙김을 심층적으로 공부한다. 시니어상담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다. 시니어상담기초, 시니어라이프코칭 등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건설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조직과 웰빙은 조직구성원의 웰빙을 도모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긍정조직과감정코칭 등 직원의 심신 안정과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운다. 심리상담 관련 실습과 명사 특강도 진행한다.

문화예술경영학과는 창작자와 관객을 연결하는 예술경영인 배출을 목표로 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해야 하는 만큼 공연기획과 지역문화기획, 문화콘텐츠 제작, 재원 조성, 홍보 등 커리큘럼을 폭넓게 구성했다. 전공 세부 트랙을 문화예술교육·정책 전문가, 문화예술경영 현장 전문가, 문화예술관련 조직 CEO 및 컨설턴트로 설정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공연 프로듀서 양성 과정을 특화했다. 실무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꾸렸으며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자격증 취득 특강 등 필요한 강의를 제공한다. 지역의 공연예술축제에 인턴십과 실습을 나갈 수 있다는 점은 학과의 강점이다. 지역문화재단 등 지역사회와 인프라를 구축한 덕분에 학생들은 현장 감각과 실무능력을 익힐 수 있다. 지역뿐만 아니라 예술의전당,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등 대표적인 예술기관과 업무 협력도 맺고 있어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다. '비하인드스테이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아트센터, 거리예술제, 복합문화공간 등을 방문해 공간의 운영방식과 성격을 직접 탐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다. 충분한 사례를 바탕으로 주도로 진로를 설계하도록 지도한다.

입시전형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학과와 문화예술경영학과 일반 입학전형은 서울사이버대학교 공통 절차를 따른다. 지원동기 등을 포함한 학업계획서 70%,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정서적 안정성, 인내력, 인터넷 활용 능력 등을 보는 학업준비도검사(적성 평가) 30%를 합산해 반영한다. 학업준비도검사는 1회 응시할 수 있으며 30분 이내 작성 완료, 응시 후에는 수정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원서접수 및 전형료 납부는 2025년 1월14일(화)까지 가능하다. PC나 모바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 홈페이지(apply.iscu.ac.kr)에 접속해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입학서류 제출 날짜도 동일하다. 합격자 발표일은 2025년 1월20일(월)이다. 합격 여부는 입학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취업과 이직 위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한다

이우경 심리학과 교수,
이의신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어떤 수험생이 각 학과에 지원하면 좋을까.

이우경 상담 및 임상심리학, 발달심리학, 코칭 심리학 등 심리학을 깊이 있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 배우고 싶은 분. 심리학의 주요 이론과 개념, 연구 방법, 응용 심리학까지 커리큘럼을 다채롭게 구성했다. 특히 심리 전문가로 나아가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는 분이면 좋겠다. 본교 일반대학원에 진학해 심리학 석박사까지 가능하니 미래를 더 길고 정확하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이의신 어떻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인 문화예술분야 현장자와 이 분야에 직업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온다면 만족스럽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과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우경 서울, 분당,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지역 심리상담 센터에서 연계 활동이 가능하다. 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실습과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사이버대학교 최초 심리학과 신설 기념으로 명사 중 특강도 진행한다. 릴레이로 계속해서 열 계획이다.

이의신 취업과 이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마이크로디그리(소학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원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단기간에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해서 직업적 경쟁력을 갖추기에 유리하다.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을 분석하는 문화기술, 사는 지역에서 능동적인 향유자와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문화관광, 전시 기획과 예술 마케팅 등을 배우는 미술경영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일대일 맞춤 지도로
현장에 최적화된 영상 전문가를 양성한다

동국대학교 듀이카
영화학 전공



교수진

김재영, 배형준, 이찬욱, 김아론, 김은동, 김수열,
정동진, 이남훈, 신나영, 송윤형, 성진수, 오혜령,
임영빈, 임석진, 윤영경, 김율리, 최윤호, 유지은,
박상은, 최병근, 문정미

커리큘럼

영화학개론(전필), 영화사(전필), 영화제작워크숍(전필), 영화기술(전필), 영상매체론(전필), 영화비평(전필), 영화이론(전필), 영화연출론, 디지털영화제작, 디지털영화제작II, 영화제작워크숍I, 영화제작워크숍II, 영화촬영, 영화조명, 영화편집론, 필름편집실습, 영화기획, 사운드디자인, 프로덕션디자인, 영화와 회화, 디자인론, 영화작가연구, 작품분석, 시나리오작법, 시나리오창작연습, 화술, 기초연기I, 기초연기II, 카메라연기, 카메라연기II, 영화연기, 영화연기지도

ducsi.ac.kr

02-2260-3333

전공소개

동국대학교 DUICA(듀이카)는 내년에 개원 50주년을 맞이한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다양한 핵심 인재와 그들의 역량을 육성한다는 목표에 걸맞게 9개 전공(영화학, 경영학, 컴퓨터공학, 멀티미디어학 등)과 세부 트랙 17개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듀이카 영화학 전공은 영화영상제작과 연기 두 트랙으로 나뉜다. 커리큘럼은 1~2학기에는 영화학 개론과 영화연출론, 시나리오 작법, 기초 연기 등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수업으로 채워져 있으며 3~4학기에는 시나리오 창작 연습과 영화 연기 분석, 현장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영화제작워크숍 등 심화 과정을 거친다. 5학기에는 국내외 영화제와 공모전에 출품하는 작품을 제작하고 인턴으로 현장을 경험한다. 졸업 뒤엔 현장에 투입되거나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로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구성에 신경 썼다. 연말마다 진행하는 ‘꿈틀영화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상영하고 관객의 반응을 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해 자신감을 길러준다. 또한 꼼꼼한 일대일 멘토링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전문가들로 꾸린 교수진은 동국대학교 듀이카의 또 다른 강점이다. 2022년 김철휘 감독의 <가리워진 길>은 제44회 클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제 국제경쟁부문에 진출했다. 김철휘 감독은 2018년엔 <모범시민>으로 제71회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경쟁부문과 제54회 시카고 국제영화제, 제16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국제경쟁부문에 진출하면서 전도유명한 감독으로 일찍이 주목받았다. 2021년엔 제3회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 조민서 감독의 <루즈>가 본선에 진출했으며, 유지은 감독의 <버커2>는 제11회 충무로 단편·독립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유아영 감독의 <소화불량>은 제20회 댈러스아시아영화제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연출뿐만 아니라 2020년엔 신현성 학생이 <부산일보> 신춘문에 영화평론 부문에 당선되기도 했다.

입시전형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동국대학교 듀이카는 입시전형에서 고교 내신,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그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영화학 전공은 영화영상제작 트랙과 연기 트랙 모두 실기 60%와 면접 40%를 합산해 반영하며 모집인원은 각각 30명이다. 실기전형에서 영화영상제작 트랙은 당일 제시되는 15분 분량의 영상물을 시청한 뒤 감상이 담긴 작문을 제출해야 한다. 연기 트랙은 약 10분간 자유연기와 함께 카메라 테스트가 있다. 면접전형은 두 트랙 모두 같다. 면접에서는 적성 여부와 지원 동기, 관심도와 열의 등을 질문하며 관련 전공 분야 활동 실적(수상, 경력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은 동국대학교 듀이카 입학 홈페이지(ducsi.ac.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재영 교수

“열정을 보이는 학생을 포용하려고 한다”

김재영 동국대학교 듀이카
영화학 전공 교수

동국대학교 듀이카 영화학 전공의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에서 자랑할 만한 과목을 하나 소개한다면.

다른 학교와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하는 영화제작워크숍 수업이다. 단편영화 한편을 완성하는 수업인데 방학 때 미리 만나 5주 정도, 교수와 학생이 시나리오의 틀을 함께 만들어나간다. 좋은 시나리오가 곧 좋은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나리오에는 물론 연출, 제작, 편집, 촬영, 기획, 미술, 연기 등 각 파트를 적어도 한번씩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재학 중 영화 3편 정도를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다.

동국대학교 듀이카 영화학 전공에서만 알아갈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

국내외 영화제 리스트를 제공하거나 각 영화제의 경향을 분석해 학생 작품과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영화제에서 올린 성과가 편입학, 대학원 입학 등에 유리한 포트폴리오가 되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

실기 60%, 면접 40%를 합산해 학생을 선발한다. 실기에서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

영화영상제작 트랙의 경우 감상문에 적힌 영화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본다. 그렇지만 큰 부담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 편하게 써달라. 연기 트랙의 경우 기본기에 중점을 두는 편이지만 없어도 괜찮다. 원가를 표현하는 데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를 본다. 열정이 있는 학생은 모두 포용하려고 한다.

입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마디 해준다면.

대학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수시와 정시 외에도 다양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교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영화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니 현장 경험이 없더라도 편하게 지원하기를 바란다.